

-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제 사업
- 3국 불교우호교류회의를 발전 확충시키기 위한 협의
- 학술 및 인적교류의 제 사업
- 불교이해를 한층 깊게하기 위한 제 사업
- 불교 홍보의 제 사업

10월 26일부터 3일간 교토(京都)에서 열린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의 제3차 대회는 지난 95년의 1차대회와 작년의 2차 대회에서 다져진 3국 불교의 우의를 확인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이 설정됐다는 점에서 괄목할 성과를 얻었다는 평이다.

이번 대회에서 95년 이후 해마다 열리는 대규모 대회를 지양하고 각국에 설치

류의 제사업 △불교 이해를 한층 깊게 하기 위한 제사업 △불교 홍보의 제사업 등이다. 이는 95년의 북경선언이 담고 있는 도덕향상, 환경보호, 생태균형, 전쟁 반대등을 위한 제반 사업의 추진과 작년 서울선언의 내용인 3국의 불교문화 전시회, 인력교류 위원회 설치, 주요사찰 승려 교환 과정, 국제환경학술세미나 개최, 세계난민 구제사업 전개등에 대한 제



10월 27일 일정교성회 보문관서 열린 본대회 장면.

10월 27일 한중일불교우호 교류회의의 본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3국의 대표들은 취재 기자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한국측에서 월주스님이 중국측에서 도술인(刀淑仁) 중국불교대표단 부단장이 일본측에서는 고바야시(小林隆彰) 일본대표단장이 나왔다.

- 고바야시 스님께 묻습니다. 한국의 조계종은 '나눔의 집'을 통해 정신대 할머니들의 불우한 노후를 적극 돕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일본 불교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런 내용은 우리들도



기자회견에 나온 3국대표. 오른쪽부터 월주스님, 고바야시스님, 도술인 부단장.

우호 확인 넘어 공동사업 '행동화'

한-중-일 불교대회 성과와 의의

필 연락 사무소를 통해 실제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은 3국불교가 인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인식을 '행동화'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이같은 의지는 폐회식에서 채택된 '일본 선언'에서 확인된다. 3국불교가 연락사무소를 중심으로 추진할 사업을 담은 일본선언의 내용은 모두 5가지.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제 사업 △3국불교우호교류회의를 발전 확충시키기 위한 협의 △학술 및 인적 교

인교 보다 구체화된 사업 추진의 방향 설정으로 평가된다.

이번 대회의 주제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로'로 정해진 것도 3년간의 결속을 바탕으로 행동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데에 대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회 주제를 기반으로 한 각국 대표의 기조연설도 이같은 '행동화'의 의지를 거듭 확인시켰다. 먼저 기조연설에 나선 전일본불교회 회장 다카이류슈(高井隆秀)스님은 "지금 세계의 말라버린 마

각국 연락사무소 설치 '연례대회' 지양 불교홍포 '합심'... 환태평양시대 선도

음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생사를 초월한 진실된 평안임을 전제하며 "3국 불교도는 굳게 손잡고 거둬지는 단결과 일체의 행복을 위해 정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중국대표단장 명양(明陽)스님은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기하고 자신부터 또 지금부터 실천하여 자기를 인류의 모든 착하고 진취적인 위업에 동참시키는 한 불발로 세계에 전파하는 위업은 멀지 않은 장래에 꼭 중성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임을 확인했다.

한국측 기조연설자로 나선 지하스님도 "타인을 내 몸같이 위하는 자비시대, 인간의 존엄을 극대화 한 인권시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명시대, 인간 삶의 질

을 높이는 문화시대가 되기 위해 화해와 용서의 미덕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3국 불교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서 확인된 3국불교의 역할은 각국의 연락위원회를 통해 구체적 사업으로 추진된다. 일본선언에 기초한 사업의 내용은 인간 생활을 향도하는 불교의 위상 강화와 인류를 향한 불교의 전파로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제1차 대회부터 줄기차게 외쳐진 '황금유대' 가 이제는 논의와 성언의 범주를 넘어 어떻게 현실화 될 것인가는 각국에 설치되는 연락위원회의 활동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연태 기자

"저는 일본 민족과 문화의 형성에 있어서 실로 중국은 아버지의 나라이며 한국은 어머니의 나라라고 믿어 왔습니다. 일본 불교의 각 종파는 어 느꼈거나 양국으로부터 전해지고 자라는 것이나 다를 없습니다. 한때 일본이 저지른 악몽을 참회함과 더불어 저희들은 영원히 평화를 회구하는 국민으로서 조박초 선생이 제안한 '황금의 유대'를 견고히 해 세계인류의 공존 공영, 즉 부처님이 설하신 화합과 공생이라는 이상의 건설에 이바지할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카무라 고류(中村隆隆)일중일 불교교류회 회장은 제3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개최식 인사에서 실로 중요한 말을 했다. 중국과 한국을 아버지와 어머니의 나라라고 칭한 그의 인사말은 일본의 역사적 자존심을 뛰어 넘은 곳에서 큰 박수를 받았다. 일본의 한 취재 기자는 이 말에 대해 "종교적 차원의 높은 정신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다"고 평하며 "인류평화를 위해 불교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로 나카무라 회장과 같은 겸허와 미래지향적 의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불교가 인류의 정신을 이끄는 종교가 되어 온 것도 바로 그 가르침이 자비와 화합의 정신에 기반되어 있음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러나 그 자비와 화합의 실천은 쉽지 않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 높은 정신력, 다시말해 썩어가는 일이고 설진 인과 업보를 뛰어넘지 않는 믿고 신중한 자비와 화합의 이상세계는 이루어 질 수 없다.

한중일 3국의 역사는 일이고 설진 인과업으로 점철되어 왔다. 침략과 지배 화합과 공생의 현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가운데 각자의 문화와 정치를 견지해 온 것이다. 그런 역사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바로 초월적인 정신세계에서 우리 나오는 자비와 화합의 의지에서 동북아의 미래는 밝게 다가 올 수 있다. 이제 3국불교계는 밝은 미래를 준비하자는데 대승적 합의를 보았다. 그런 기점에서 가장 어려운 말을 용기있게 던진 나카무라 회장의 인사말은 일이고 설진 현실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힘을 실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회의 주제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계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 반복되는 가운데 각자의 문화와 정치를 견지해 온 것이다. 그런 역사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바로 초월적인 정신세계에서 우리 나오는 자비와 화합의 의지에서 동북아의 미래는 밝게 다가 올 수 있다. 이제 3국불교계는 밝은 미래를 준비하자는데 대승적 합의를 보았다. 그런 기점에서 가장 어려운 말을 용기있게 던진 나카무라 회장의 인사말은 일이고 설진 현실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힘을 실고 있는 것이다.

수요 인터뷰

"불자교육·봉사 실천에 역점"

동산반야회 15년 이끈 김재일 회장

신행단체로서 모범적 실행활동을 펼쳐 온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가 13일 창립, 15주년을 맞는다. 지난 82년 창립 재가불자들의 체계적인 불교 교리와 교육과 사회봉사 활동에 전념해 온 동산반야회. 초대회장으로 15년동안 동산반야회를 이끌며 재가불자운동의 또다른 장을 열어 가고 있는 김재일회장을 만났다.

(편집자 주)

- 20여년 이상 몸 담았던 공직을 포기 하면서까지 활동해오신 그 원력이 궁금합니다.

▲서울시 행정 공무원으로 재직중 상

북구정(80년), 서울시청(86년), 중구청(91년)불자회 등을 조직하며 직장법회 활성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던 중 체계적인 불교 교리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경전공부 모임을 만들었고 이를 계기로 지금의 동산반야회를 창립하게 됐습니다.

- 창립15주년을 맞이한 동산반야회가 이뤄낸 결실들이 많은 줄 압니다.

▲동산반야회의 설립 취지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불자교육과 사회봉사에 있습니다.

창립 취지에 부응해 92년 동산불교대학이 문을 연 이후 7기에 걸쳐 364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것이 대표적이며 88년 월곡동 어린이집 설립, 90년 석관동 독서실 개원, 93년 한국불교 기아도움기구 창설, 96년 네발 외국인 초등학교 설립 추진, 97년 북한난민돕기 1만2천불 기탁과 동산불교대학 LA분교설치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합니다.

김주일 기자

- 앞으로 동산반야회가 역점을 두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2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한글 불교의식 보편화와 만일염불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염불운동에는 (아미타불 삼부경) 심만팔천번 사경, 3천배정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네발 외국인 초등학교를 설립할 것이며 해외불보내기 운동도 적극 동참할 생각입니다.

-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포교 활동도 활발했는데 이 분야의 계획도 들려주시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LA불교 개원 때문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해외 교포들의 포교 현주소가 힘든 실정이라곤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LA불교 설치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 분교 설립을 검토해 교포불자들의 포교와 체계적인 불교교육에 앞장 서겠습니다.

봉 金剛山 月海寺 개원 기념 百高座 대법회 축

귀의삼보하옵고, 금번 저희 대한생활불교회에서는 강원도 구복암 월해스님의 큰 뜻을 받들어 구복암을 월해사로 개명하고 나라의 국운을 위한 호국, 호법 불교의 전통정신의 도량으로 계승 발전 시키고자 국제선원 개산 百高座 기도 대법회를 입제하고, 강원도 月海寺 개원 법요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 내용** 기념 법요식
- 월해사 개원 및 국제수련원개원(준비)
 - 일만불(석불) 조성봉안(점안)
 - 국내외 백분의 고승대덕 스님 초청
 - 백분의 대승법사 초청
 - 백분의 각분야 지도자 초청
 - 정규불교대학 설립추진위원회 발족
 - 일만명의 사부대중 청정운동(동참)
 - 일만동 정등기도
 - 월해스님, 법주스님 행적비 제막식
 - 국민대화합을 위한 불자연애인 공연

- 봉행위원장** 재원 김덕수(본회 이사장)
- 봉행위원**
- 지도위원 : 도왕큰스님(대왕사주지)외 11명
 - 법인이사 : 이재성 외21명
 - 법인법사단 : 이강주 외31명
 - 분원사찰 및 지회 : 월해사 외20개 사찰
 - 법인단체 : 불교병원, 바른한글영역원, 생불문화원, 생불유치원, 티벳불교문화원, 승군사연구소, 불교문인보리수회, 선문화대학동문회, 선문화대학학생회, 생불학생회, 지장회, 관음회, 선문화대학학동분교

- 재가법사품계안내** 삼화상 七증사 큰스님을 모시고 생활불교금강계단
- 일시 : 1997년 12월 25일 10시
 - 장소 : 대한생활불교회관 법당
- 일시 : 불기2541년(1997년)11월19일(음10월20일)13시
 - 장소 : 월해사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대명콘도 뒤)
 - 전 화 : 사단법인 042)531-9542,3
 - 월해사 : 0392)635-6502,6522
 - 주관 : 사단법인 대한생활불교회
 - 주최 : 월해사 (구 구복암)신도회
 - 후원 :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방송, 불교TV, 군승(예)법사단, 현대불교신문, 불교신문, 법보신문, W.F.B.Y.한국본부, 종교사학회, 국제선문학회.

사단법인 대한생활불교회 이사장 재원 김덕수 합장